

미국 여성운동의 세대간 ‘단절’과 종교적 배경

최연정*

目 次

- I. 머리말
- II. 미국 여성운동의 흐름과 종교에 대한 논의
- III. 1세대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기반
- IV. 1세대 페미니즘의 단절과 종교적 배경
- V. 맺음말

I. 머리말

여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을 염두에 두기 훨씬 이전부터, 종교라는 전쟁터에서 여성해방운동은 오랫동안 진행되어오고 있었다.¹⁾ 여성들은 교육에 있어 불이익을 당해왔고, 이는 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

1) Gerda Lerner, *The Creation of Feminist Consciousness: from the Middle Ages to Eighteen-Seven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 김인성 옮김, 평민사, 1998, pp. 28-29.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다 러너가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 이전에 집필했던 『가부장제의 창조』(*The Creation of Patriarchy*)의 논의들을 알아두어야 한다. 『가부장제의 창조』는 『역사

단 여성들 개개인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사상이나 역사와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재능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도 사교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오랜 세월 동안 교육 받은 여성은 소수 귀족과 수녀들뿐이었다. 이들에게는 수 세기 동안 기독교 내에서 동등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종교를 새롭게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소수 여성들의 저항의 역사는 연속성을 갖기 힘들었지만,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지적 작업은 1세대, 2세대 여성들에게서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 사실만으로도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종교적인 차원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각을 통해, 이 글에서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종교의 영역을 여성들의 일차적인 활동 영역으로 보고 ‘종교와 여성운동’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함을 밝혀두겠다. 기존에 여성운동과 서구 종교의 관계는 대개 일방적으로 여성운동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식이었다. 주로 사회학과 여성학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식의 관계 설정에서 종교(기독교)는 거의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었고, 주요 관심사도 아니었다. 혹은 1960년대 ‘제 2의 물결’ 이후 페미니즘과 여성학이 자리 잡게 되면서, 종교나 종교학도 그 영향을 받은 여러 분야 중 하나로 제시될 뿐이었다.

이 글은 관계의 축을 옮겨 미국 1세대 페미니즘의 단절기(1920-1963)²⁾에 대한 종교학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당시 여성들의 종교

속의 페미니스트』 1권에 해당하는 책으로, 러너가 가부장제 창조 이전으로 분류하는 시대의 신화와 상상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러너는 1권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계성의 의미와 그 관계가 깨지면서 여성의 역사에 심각한 충격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하며, 이 같은 맥락에서 종교야말로 수백 년 동안 여성들이 여권 의식을 얻기 위해 투쟁하던 일차적인 전투장이라는 자각을 했다.

- 2) ‘1세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2세대 페미니스트’라 지칭한 데서 결과적으로 정의된 말이다. 시기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구분에 따라 투표권 획득 전까지의 여성운동 흐름, 즉 대략 1830-1920년까지의 여성운동을 1

인식과 종교적 배경이 40여 년에 이르는 여성운동 단절기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임을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19세기와 20세기 페미니즘의 전개과정과 시대별 비교를 통해 종교가 여성운동에 미친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여성들의 종교 참여와 그로 인한 종교의 변화, 여성들이 문제 제기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양자 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1세대 페미니즘이 종교에 대해 발견한 내용들은 2세대 페미니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1세대 여성들은 후대 여성들과는 다른 조건 속에 있었다. 2세대와는 다른 이 조건들이 여성운동의 단절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원인이다. 이 글에서는 1세대 여성운동의 흐름과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살핌으로써 이 조건들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II. 미국 여성운동의 흐름과 종교에 대한 논의

1. 미국 여성운동의 흐름

1세대 여성운동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노예제 폐지 운동이었다. 노예제 폐지 운동에 참여하면서 발언권을 얻은 여성들은 '여성

세대 페미니즘이라 칭하겠다. 투표권 획득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운동은 맥을 잇지 못하는데, 본 논문은 40여 년에 달하는 여성운동의 '단절'에 종교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2세대 페미니즘'은 미국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를 기점으로 본다. 초기 여성운동은 다양한 그룹들의 인권운동 속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각각의 운동에 공통된 기점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여기서는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Feminine Mystique*)가 출간된 1963년을 상징적인 기점으로 보고 1920-63년을 단절기로 구분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이전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실천했던 '운동으로서의 여성주의'가 여성 스스로의 욕망과 느낌에 솔직하지 못하고 결국 여성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 아래 소위 '3세대 페미니즘'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여성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는가를 반성하면서 운동으로서의 여성주의와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여성주의'에 관심을 두고 여성 자신의 삶이나 역할에 주목한다.

의 예속'을 또 다른 노예제로 인식하고 여성운동의 독자적 조직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조직화된 운동은 1848년 뉴욕 세네카 폴스에서 열린 여성의 권리 대회(Woman's Rights Convention)로 나타났다. 세네카 폴스의 선언서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하면서, 투표권에서 여성의 배제, 여성의 예속과 민법 상 재산권의 결여, 경제적 종속, 고등교육과 사제직에서의 배제 등을 고발했다. 이 선언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투표권'이라는 쟁점으로 집중시켰다.

이런 와중에 가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성적 자유' 또는 '자유로운 결합'과 같은 유토피아적 관념들이 대중적인 관념으로 전파되었다.³⁾ 1세대 페미니즘은 출산통제라는 제한된 쟁점을 통해 이를 수용했고, '새로운 성적 윤리'에 대한 모색으로 나아갔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성적 윤리라는 쟁점이 강조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빅토리아적 가족형태가 끊임없이 옹호되기도 했다. 19세기 중반에 출현한 빅토리아적 가족형태는 여성의 고유한 미덕과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1세대 백인 중간계급 여성들은 도덕적 우월이라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자본으로 삼아 공적인 영역에서 더 큰 역할을 획득하는 데 사용했다.⁴⁾ 그녀들이 여성 참정권을 정당화하는 방식도 이와 맞닿아 있었다.⁵⁾

그러나 여성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덕'이라는 전략은 전통적으로 성적 청교도주의로 해석되었고, 1920년 투표권을 획득했을 무렵에는 이른바 1차 성혁명을 거치면서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결혼 내부로 성애를 도입하는 결과를

3) 이에 대해서는 권현정 외,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서울: 공감, 2003), 3장 "1세대 페미니즘"을 참고할 것.

4) Richard J. Evans, *The Feminists: Women's Emancipation Movements in Europe, America and Australasia 1840-1920* (New York: Barnes & Noble Books, 1977). 『페미니스트: 비교사적 시각에서 본 여성운동 1840-1920』, 장현백 외 옮김, 창작과 비평사, 1997, p. 51.

5)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나 죄수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숙한 여성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등은 여성운동의 가장 보편적인 선전전술 중 하나였다. *Ibid.*, p. 54.

놓았다. 남성의 성에는 관대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순결을 요구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이중기준에 대해 참정권 운동가들이 성적 자유라는 해법보다는 결혼에 충실한 관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 것은, 여론을 장악하려는 대중운동 방식을 선택하면서 나타난 필연적이기도 현실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⁶⁾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고 결혼과 가족 내부에 남으려는 이들의 상반된 열망은 여성들에 대한 이중기준의 강화라는 퇴행적인 결과를 낳았다.

세네카 폴스 대회를 거치고 다수의 여성권리운동 단체를 설립하면서 조직적으로 이어지던 1세대 여성운동은 1920년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 19조⁷⁾의 비준으로 여성참정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종언을 고했다. 1920-50년대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단절'의 시기였다. 참정권을 비롯하여 1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얻어낸 많은 권리들은 정체되거나 퇴보하였고, 페미니즘적인 사유도 잊혀졌다.⁸⁾ '참정권의 획득'이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은 이 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즉 참정권을 획득한 이후 운동의 구심점을 찾지 못한 여성운동은 자연스럽게 와해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이하여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고, 40년대 2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산업분야에 진출해야 했으며, 전쟁이 끝난 50년대 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중용받았기 때문이라는 도식적인 설명도 이 단절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설명이 되었다. 여성들이 경제참여와 가정복귀의

6) 이남희, “영국 여성참정권운동의 성격 1897-1918: 활동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p. 169.

7) 연방 헌법 수정 제 19조(1919년 6월 4일 발의, 1920년 8월 26일 비준) “제1절.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국가나 어떤 주에 의해서도 거부 또는 제한 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한국미국사학회 미국역사자료실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link/d-law-k.htm> <미국 헌법>에서 인용.

8) 2세대 페미니스트들이 발견해낸 남성 지배의 면모들은 실상 1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서 이미 발견되었던 것들이었고, 이 선배 페미니스트들을 찾아냄으로써 현대 여성운동은 긴장한다. 자신들이 밝혀낸 것들도 이렇게 잊힐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은 학문과 각종 제도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악순환을 경험하면서 조직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여성운동이 다시금 등장하게 된 배경은 동반자적 가족형태와 가정성(domesticity)이었다. 60년대 대항문화의 반가족적 풍토 속에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동반자적 가족형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가부장제라는 남성권력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갔다. 이는 구체적으로 가족 내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고정적인 성역할, 가족관계에 부착되어 있는 수동적인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관념에 대한 반대였다. 특히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비롯하여, ‘저항의 정치’, ‘차이의 정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등으로 대변되는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다양성과 대안적 하위문화에 대한 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세대 여성운동과 구별된다. 다양한 페미니즘 사조들이 이 시기에 공존했으며, 따라서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는 다양한 전략의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사실 2세대 페미니즘에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모순적 요소들은 페미니즘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수차례 변모해왔다. 따라서 2세대 페미니즘의 시작과 변화, 대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운동의 맥락과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다. 2세대 여성운동가들은 락 음악과 히피 등으로 상징되는 대항문화의 수혜를 받은 자들이었고, 그 가운데 여성운동도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의 소요 속에서 출현했다. 이들이 이전 세대 여성운동가들에 비해 차이와 다양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서슴지 않았던 데에는 이런 사회문화적 변화의 영향이 컸다.

2. 여성들이 종교 참여와 종교에 대한 논의

1830-1920년에 이르는 1세대 여성운동의 시기에 종교에 대한 페미니즘적 논의와 여성운동가들의 종교 인식은 크게 주요 교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성의 도덕적·영적 우월성에 대한 논의와 복음주의 진영으로 대표되는 소수파의 비판적 종교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다수였던 주요 교파의 여성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이

상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여성성과 영성의 결합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으로 대표되는 소수파의 여성들은 남성지배가 성서를 기반으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수세기동안 공식적으로 도전받지 않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양자 모두 개신교회 단체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일하며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얻었던 첫 번째 장(長)이었다.

19세기 여성 종교인들의 활동은 20세기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참된 자매애에 기반 한 이 시기의 소모임들은 여성 활동의 근간이었고, 여성들은 비록 지도자까지는 아니라 해도 많은 종교 공동체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가고 있었다. 중산층 여성들은 가정과 국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종교 자선단체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여성이 설교를 하고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둘러싼 최초의 논쟁들도 일어났다. 20세기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과는 달리, 19세기의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여성 설교자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⁹⁾ 물론 대부분의 교파들은 여성의 설교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종파 운동 및 유포피아 공동체의 출현을 통해 여성들은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¹⁰⁾ 이렇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를 변형시키고자 했던

9) 바바라 맥허피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주의를 여성의 침묵이나 복종과 연결 지어 생각하지만, 유니테리언 교회나 웨이커 교회, 몇몇 복음주의 단체에서는 여성에게도 중요한 공식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다고 한다.

Barbara MacHaffie, *Her Story: Women in Christian Tradi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기독교 전통 속의 여성』, 손승희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 151.

10) 가족이나 성역할에 대한 기존 통념에 철저하게 도전했던 세이커 운동과 오네이다 공동체,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지회, 웨이커 힉스파 등의 종파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런 공동체들에 더 많이 참여했는데, 바바라 맥허피는 이런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여성들은 종파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개신교 교회와 미국 문화 안에서 그들이 갖는 열악한 지위에 대해 항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Barbara MacHaffie, *Ibid.*, p. 182.

여성운동가들 중에는 “남성지배는 성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성서와 정통 교회는 여성의 진보에 있어 두 가지 큰 걸림돌”이라는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¹¹⁾ <세네카 폴스 선언문(Declaration of Sentiments, 1848)>과 『여성의 성서(The Woman's Bible, 1895)』를 통해 성서와 교회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다섯 명의 여성들¹²⁾이 주도하여 결성하게 된 뉴욕 세네카 폴스의 여성 권리 대회는 68명의 여성과 32명의 남성들이 서명한 선언문을 채택했고,¹³⁾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가운데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얻은 정부가 구성될 때 이런 권리들은 확보되어야 함을 자명한 진리로 선언하는 바이다. ... 인간의 역사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절대적인 전제를 확립함으로써 계속해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침해해 온 역사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편견 없는 세상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전하노라. ... 남성들은 국가에 여성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교회에도 받아들였으나, 사도들의 권위를 내세워 목회에서 여성들을 배제하고 교회의 일에 공식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을 종속적인 위치에 놓았다. ... (세네카 폴스 1848. 7. 19-20)¹⁴⁾

-
- 11) 이와 같은 관점을 보이는 글과 연설들을 보려면 Ellen Carol Dubois (ed.), *The Elizabeth Cady Stanton-Susan B. Anthony Reader: Correspondence, Writings, Speeches*, 2d edition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81, 1992) & Geoffrey C. Ward, *Not for Ourselves Alone: The Story of Elizabeth Cady Stanton and Susan B. Anthony, and Illustrated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1999)를 참조할 것.
- 12)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 1815-1902), 루크레시아 모트(Lucretia Mott, 1793-1880), 마사 코핀 라이트(Marcha Coffin Wright, 1806-1875), 매리 앤 맥클린탁(Mary Ann McClintock, ?-1884), 제인 헌트(Jane Hunt, 1812-1889).
- 13) Elisabeth Griffith, *In Her Own Right: The Life of Elisabeth Cady Stant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p. 56-57. 선언문에 서명한 이들 대부분은 유니테리언, 퀘이커 등 보다 진보적인 교파에 속해 있었다.

이 선언문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모든 인간의 평등성이 구체적인 역사에서 실현되지 않았고, 더욱이 교회에서 여성들이 외면적으로만 받아들여졌으나 실제적으로 모든 중요한 일로부터 배제된 종속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현대 여성신학이 제기하고 있는 여성 문제의 핵심을 밝히고 있다. 성서는 여성의 권리를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고, 이 때 '성서 다시 읽기'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후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과 그녀가 구성한 위원회는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성서』(*The Woman's Bible*, 1895)를 펴내기에 이른다.¹⁴⁾ 『여성의 성서』는 기존의 성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서가 아니라, 여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성서 구절에 대한 주석집이다. 그것은 성서가 '특정한 문화적 시대의 산물'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신적인 진실과 '문화적으로 제한된 관점'이 모두 들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입장은 현대 페미니스트 성서해석자들이 취하고 있는 관점과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석도 현재까지 유효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스탠턴의 주석은 <창세기>의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구분하고, 첫 번째 이야기에 나타나는 평등주의를 강조한다.

여기 성스러운 역사가가 여성의 출현에 관해 쓴 첫 번째 설명이 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두 성을 동시에 창조한 것이다. 성서의 언어를 통해서 볼 때, 신성 안에 사립이 있었다는 사실과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동등하게 출현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¹⁶⁾

그녀는 그 밖에도 신격의 여성적 측면이나 언어가 갖는 중요성을

14) Elizabeth Cady Stanton, "Declaration of Sentiments", in Alice S. Rossi (ed.), *The Feminist Papers-From Adams to de Beauvoi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p. 416에서 재인용.

15) 이 위원회는 20명의 미국 여성들과 5명의 유럽 여성들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는 3명의 여성 목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16) Elizabeth Cady Stanton and the Revising Committee, *The Woman's Bible* (New York: Prometheus Books, 1895, 1999), p. 14.

지적하기도 하고, 창세기 1:26¹⁷⁾의 내용을 들어 여성의 종속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는 신성 안에 남성적 요소와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갖는 여성적 요소가 이 텍스트들 속에 선언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여!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인간을 창조했다.”¹⁸⁾

성서나 시민법이 기꺼이 강조하는 여성의 종속에 대해 말하자면,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지배할 동등한 권한이 여성에게도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말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¹⁹⁾

『여성의 성서』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첫째, 성서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을 제지하거나 노예제도를 합리화하는 ‘정치적 도구’(political weapon)로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 둘째, 따라서 성서해석은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다.²⁰⁾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가 서구 역사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가장 중요한 메타포의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성운동에서 성서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심각한 것임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해 준다.

이 책이 출판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공식 교회는 물론, 그녀가 회장직을 맡고 있던 전미여성참정권협회(National American Woman's Suffrage Association, NAWSA)조차도 그녀의 생각을 거부했다.²¹⁾ 그러나 이러한 결론들은 오늘날에는 매우 친숙한 것이며, 많은 페미니스트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세기 1:26),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2001)의 번역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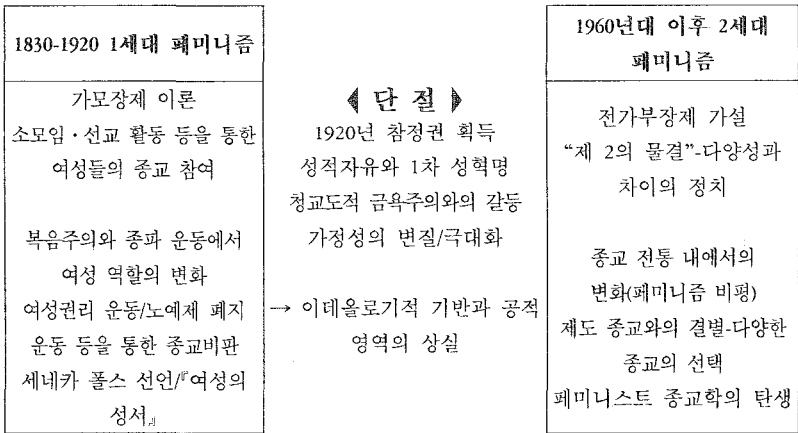
18) Elizabeth Cady Stanton and the Revising Committee, *op. cit.*, pp. 14-15. 원저자 강조.

19) *Ibid.*, p. 15.

2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pp. 268-71.

21) Barbara Machaffie, *Readings in Her Story: Women in Christian Tradition*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2), pp. 101-02.

트 신학자와 연구자들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 1960년대 여성운동이 재개되면서 이러한 관점은 이미 기독교와 유대교뿐 아니라 대안적인 모델로 제시된 종교들에게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1960년대 이후 많은 기독교와 유대교 여성들은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성차별적인지를 발견해 가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례에서 남성형 언어가 일반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 신이 오직 남성적 이미지로만 묘사되는 것, 모든 가시적 역할을 남성이 독점하는 것 등이 비판과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들은 지도적 역할에서 배제되어 있었지만 많은 모임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종교계는 커다란 변동을 맞게 된다. 종교와 종교학 영역에서 페미니즘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울타리 밖에서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스트 여성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여성신학은 분열했고, 서구 사회는 다양한 세계 종교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처럼 19세기 페미니즘은 20세기 페미니즘에 값진 유산을 남겼다. 특히 성서 종교에 대한 문제제기의 내용은 19세기와 20세기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째서 20세기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들보다 앞선 세대의 다른 여성들이 이미 했던 것을 알지 못한 채 새로 이 과정을 밟아야 했을까? 연속성의 결여, 집단 기억의 부재

는 대체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특히 19세기 이전의 간헐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집단적인 운동으로 조직화되어 참정권까지 획득해냈던 1세대 여성운동의 사유가 잊혔던 이유는 뭘까? 이를 종교의 측면에서 제시하기 위해서는 1세대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기반들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III. 1세대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기반

1.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은 우선 18세기의 지적 계몽에서 찾아야 한다.²²⁾ 리처드 에번스는 페미니스트들이 대의명분으로 휘두를 만한 지적 무기들, 즉 이성, 진보, 자연법, 개인의 성취, 교육이 가지는 은혜로운 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권리의 평등 등에 관한 관념들이 계몽주의에 모두 집결되어 있다고 말한다.²³⁾ 계몽주의는 여성들이 최초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연대하고자 했던 경험, 프랑스 혁명의 이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프랑스 혁명은 법적·제도적 제약을 넘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에번스는 페미니즘이 발전하고 고양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로 자유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제시한다.²⁴⁾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구원에 대한 책임이 교회나 사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있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그에 따르면 계몽주의의 합리적 개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종교적 개인주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양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주요 개신교회의 지도적 인물들이 여성의 열등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을지라도, 모든 신자들이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은 명시

22) Kate Millett, *Sexual Politic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0, 2000),

『성의 정치학』, 정의숙 & 조정호 옮김, 현대사상사, 2003, p. 65.

23) Richard Evans, *op.cit.*, p. 22.

24) *Ibid.*, p. 23.

적으로 여성들도 포함하고 있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개인적으로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프로테스탄트의 믿음은 많은 19세기 여성운동가들에게 확신과 영감을 주었다.²⁵⁾

계몽주의에 내포된 합리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도덕적 규범들은 19세기에 들어와 자유주의 신조 속에서 융합되었다. 그리하여 청교도주의와 계몽주의 양자가 모두 담지하고 있는 합리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1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지적 정당성을 확보할 기반이 되었다.²⁶⁾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1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중간 계급적 성격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개인주의는 노예제 반대투쟁, 도덕개혁 운동, 사회개혁 단체와 같은 자유주의 운동과 여성운동의 출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²⁷⁾

자유주의 운동과 결합했던 여성운동이 점차 독자적인 조직을 갖게 되고 여성들 자신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도덕개혁'이었다. 도덕개혁은 빅토리아 여성운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처음에 제도적이고 법적인 권리들을 목표로 했던 이들에게, 도덕성은 정치적 삶을 위한 토대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성적 자유'라는 또 하나의 자유주의도 함께 대두되었다. 성적 자유라는 쟁점은 합리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완전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빅토리아 여성운동의 청교도적 금욕주의와 흥미로운 혼동을 야기했다. 성적 자유는 사랑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있

25) *Ibid.*, p. 24.

26) 여성들은 여권선언을 위한 초기 문서에서 계몽주의 남성들의 저작물을 모델로 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올랑페 드 구즈(Olympe de Gouges)가 작성했던 〈여권선언〉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모델로 한 것이었고, 앞 장에서 보았던 세네카 폴스 대회에서의 선언문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계몽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이 갖는 내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초기 여성운동가들은 이 이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7) 초기 여성활동가 중 대부분이 이런 유의 자유주의 운동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집안 출신이었으며, 자유주의적 가정에서 자란 여성들은 성장과정에서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배우게 되었다. 이 여성들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로부터 여성의 권리 획득을 위한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조직으로까지 나가게 된다.

었기 때문에, 재생산 이외의 성교에 반대하는 금욕적인 입장도 성적 자유와 공존할 수 있었다. 이 위태로운 공존은 ‘가정성’ 안에서 통합되며, 가정성이라는 가치는 무엇보다도 성서 종교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2. ‘참 여성성의 종파’와 ‘가정성’

19세기 중반 빅토리아 시대의 성모랄이 미국 사회에서 새롭게 재현되기 이전부터 ‘참 여성성의 종파’, 즉 여성성 숭배가 형성되고 있었다. 19세기에 이르러 미국은 여성을 이브의 이미지로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견해를 수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여성상은 남성에게 비해 도덕적·영적 우월성을 가진 존재, 바꾸어 말하면 덜 육감적이고 덜 성적인 존재였다. 도덕적 경건성을 소유한 참된 여성은 미국의 사회 질서를 수호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이 여성들은 조용한 설득과 근면한 모범으로 남편을 길들여 훌륭한 시민으로 길러내야 했다.²⁸⁾

그녀들이 훌륭한 시민으로 길러내야 할 대상은 남편뿐만이 아니었다. 모성에 또한 여성의 도덕적 우월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성스럽게 여겨졌다.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분리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은 여성들이 떠맡게 되었고, 이것은 여성들의 성스러운 소명이 되다시피 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발전했던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 문화에서는 어머니로 하여금 종교와 도덕성을 전수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바바라 웰터에 따르면 참 여성성의 속성에는 경건함, 순결, 수동성, 가정성이라는 네 가지 주요한 미덕이 있다고 한다.²⁹⁾ 종교는 여성 미덕의 핵심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이러한 감수성 속에는, 신이 여자에게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주어 더 빨리 구원을 받아들이게끔 만들

28) Barbara MacHaffie, *Her Story*, pp. 130-31.

29) Barbara Welter, "The Cult of the True Womanhood: 1820-1860" in *American Quarterly*, Vol. 18, No. 2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6), p. 152.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와 더욱 가까운 존재라는 관념들도 존재했다. 그리하여 여성의 '정화하는 사랑', '욕정 없는 사랑'이 죄 많은 남자를 주께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참 여성성의 종파에서 보여주는 여성과 종교에 관한 이와 같은 관념들은 이론적으로는 그 전에 이미 인식되고 있었던 것들이다. 정치 권력이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몇몇 남성들은 차츰 종교를 포기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성서를 가르치고 가족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일은 여성의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리는 대부분 여성들로 채워졌고, 이 여성들이 자선단체나 선교단체 및 교회가 후원하는 일에 관여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여성과 종교를 동일시하는 것이 상충적인 가치들을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해석되기도 했다.³⁰⁾

여성성과 가정성에 대한 숭배는 여성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성을 부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바바라 맥허피는 적어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소득들이 있었다고 보았다.³¹⁾ 우선 여성들은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 내에서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았다.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이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자 몇몇 목회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여성들에게 더욱 적합하도록 수정하기도 했다. 나아가 참된 여성성에 대한 숭배 덕분에 여성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도덕적·영적인 우월성이 계속해서 주장되자 그렇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 받았다는 것이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이 같은 종교적 풍토는 분명 여성운동의 출현을 자극했다. 개신교회 단체를 통해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일하며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얻었다. 여성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여성들과의 유대감도 이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되었고, 여성들의 입장에

30) *Ibid.*, pp. 151-52.

31) Barbara MacHaffie, *op.cit.*, pp. 133-34.

서 개혁을 추구하면서 남성들의 행동에 대항했다. 금주운동단체들은 술 취한 남편들을, 도덕개혁단체들은 호색한들을, 자선단체들은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는 공장주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역할 분담이나 남성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소수의 여성들만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토대로 활동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참된 여성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을 계속해서 받아들였고, 가정 밖의 일도 그 논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 이상에 이의를 제기했던 여성들은 교회로부터 비난 받았다. 이들 가운데에도 처음에는 복음에 나타난 여성의 평등성을 주장하면서 목회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 여성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주요 교파를 떠나 유니테리언이나 신지회 같은 좀 더 자유주의적인 단체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주요 교파에 속해 있는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도덕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렇듯 1세대 여성들은 여전히 종교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정치적으로 다수였던 주요 교파의 여성들은 선구적 여성운동가들의 급진적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 빅토리아 여성 활동가들의 운동이 더 많은 지지를 끌어 모았다.

IV. 1세대 페미니즘의 단절과 종교적 배경

1. 재정의 된 가정성과 가정 영역으로의 후퇴

도덕적 차원으로의 페미니즘의 발전과 여성 참정권 운동의 발생은 어느 정도 페미니즘의 급진화를 나타냈지만, 페미니즘의 진보는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거의 모든 곳에서 급진주의자들은 소수였고, 다수를 이루고 있던 보다 온건한 입장의 중간계급 여성운동가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급진적인 여성들이 가진 성적 평등에 대한 비타협적인 헌신은 주류 자유주의 입장의 경계 너머에 존재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여성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 성적 자유에 대한 주장들은 19세기 말에 이르면 주류 페미니즘의 '가정성' 안에 통합된다.

성서 종교로부터 비전을 얻은 참 여성성에 대한 숭배와 가정성이라는 가치는 여성들의 조직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가정성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정, 종교 영역, 여성 모임이라는 분리된 영역에서 여성들의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 간접적인 힘이었다. 이런 공간에서 여성들이 맺었던 깊은 자매애는 여성운동의 원동력이었다. 가정성은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과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성적 자유라는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급진적인 여성들의 비전들을 통합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1890-1920년 사이에 여성운동은 극도로 조직화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은 듯한 면모를 보인다. 대학교육을 받은 미혼의 직업여성이 '신여성'의 첫 세대로 출현했고, 이들을 주축으로 사회복지관 운동, 여성클럽 운동, 여성 노동조합, 소비자 연맹과 같은 기존의 제한된 여성 영역으로부터 탈피한 공적 활동들이 활발해졌다. 전미여성참정권협회나 전국여성당과 같은 정치조직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당연히게도 공적 영역에 진출하고 성적 자유와 자유연애를 부르짖었던 이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규범을 비난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여성을 동반자적 결혼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정의 된 가정 영역으로 후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근대화는 여성 개인에게 자율적인 능력을 가져다주었지만, 빅토리아 시대 가정성이 보장하고 있던 여성적 연대의 원천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모순이 낳은 결과는 1920년 참정권의 획득 이후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 낭만적 사랑, 성적 자유와 결합한 동반자적 결혼이 그것이다. 동반자적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이전에는 동성의 동료에게서 찾았던 감정적인 지지와 동반자 관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상적인 아내이자 동반자라는 이미지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빅토리아적 도덕의 구속에서 벗어남에 따라 여성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사라지고 여성의 공동 사명

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³²⁾ 그리하여 법적·제도적 권리의 획득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에 비해 정신적 자율성은 잃게 되었다.

이데올로기적 기반에서부터 여성 활동가 개개인의 가정적·종교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성서 종교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었던 1세대 여성운동은, 그 성서 종교가 담보해 주고 있었던 ‘가정성’을 토대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공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제기되었던 ‘성적 자유’라는 쟁점은 1세대 페미니즘의 마지막 시기인 20세기 초에 극대화되었고, 성혁명을 통해 빅토리아안 성도말과 통합되었다. 새롭게 정의된 가정성은 빅토리아 시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여성들만의 모임을 잃게 되었으며 자유의지라는 미명 하에 여성들은 가정 영역 안으로 후퇴해버렸다.

이 시대의 가정성은 후대 베티 프리단에 의해 ‘여성의 신비’라고 알려진 지배적인 가정 이데올로기로, 여성을 아내와 어머니의 관점에서만 배타적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가정과 모성을 중시하는 이전 세대의 관념에 성적 자유와 섹슈얼리티를 결합시켜 성적 특성을 부여한 공화주의적 모성의 현대적 해석이었다. 재정의된 가정성인 ‘여성의 신비’는 19세기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였던 ‘참 여성성의 숭배’와는 달리 여성들에게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어주지 못했다. 종교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던 ‘참 여성성의 숭배’가 여성의 도덕적·영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섹슈얼리티를 떠안은 ‘여성의 신비’는 여성들의 우월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무성적인 빅토리아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가정성이라는 가치는 유지되고 강화되었지만, 옹호되는 방식은 달랐던 것이다. 이는 1920-50년대 여성들이 조직화된 여성모임을 갖지 못한 채 가정 영역으로 후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상실은 1세대 여성운동 자체가 이미 갖고 있었던 도덕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32) Sarah M. Evans, *Born for Liberty* (New York: Free Press, 1989, 1997),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의 역사』, 조지형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p. 283-84.

2. 1세대 여성운동의 단절

1세대 페미니즘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은 무엇보다도 '참 여성성'과 '가정성'이었다. 참 여성성과 가정성에 대한 숭배는 미국의 모든 문화에 스며들었고, 19세기 초중반 급속하게 발전된 출판 산업을 통해 확산되었다. 잡지, 소설, 종교문학 등에서 여성의 본질 및 역할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었던 것이다. 이 가치들이 발전하고 고양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지적 계몽 및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던 프로테스탄티즘이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개인적으로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프로테스탄트의 믿음은, 많은 19세기 여성운동가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19세기 중반 미국 사회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성모랄이 새롭게 재현되고 있었으며, 참여성성의 속성 중에는 경건함과 종교가 여성 미덕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참된 여성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모성과 가정성)을 받아들였고, 가정 밖에서 단체를 조직하여 일할 때에도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참 여성성의 숭배로 대변되는 기독교적 가정성은 제한적이거나 교회와 가정, 여성들의 모임 등 여성의 활동 영역을 보장해주었고, 1세대 여성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서 도덕개혁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가정성과 빅토리아 성모랄은 같은 시기에 대두되었던 '성적 자유'라는 쟁점과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 도덕주의와 자유주의는 혼재해 있었고, 이 이념적 긴장은 투표권 획득 이후 여성들의 조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적 자유라는 쟁점은 1세대 페미니즘의 마지막 시기인 20세기 초에 극대화되었고, 1920년대의 성혁명을 통해 빅토리아 성모랄과 기묘하게 통합되었다. 섹슈얼리티와 결합함으로써 도덕적·영적 우월성을 상실한 이 시대의 가정성은 더 이상 여성들에게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어줄 수 없었고, 후대 여성들은 1세대 페미니스트가 남긴 유산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 19세기 중반 여성성에 대한 숭배와 결합했던 가정성이 1세대 여성운동

을 지속시킨 원동력이었던 반면, 다시 20세기 초 성적 자유와 결합하면서 변화를 겪은 가정성은 1세대 여성운동을 단절시킨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1920년대 새롭게 정의된 가정성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상실을 의미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① 1세대 여성운동에 있어서 도덕주의와 가정성의 영향, ② 교회가 제공하는 공적 영역의 중요성, ③ 성서 종교 이외의 종교에 대한 인식 부재를 1세대 페미니즘의 단절을 불러 온 종교적 조건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1세대 여성운동 전반에 거쳐 도덕주의와 가정성은 중요한 가치였다. 여성운동의 전개에 있어 ‘가정성’이라는 가치가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성서 종교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종교는 도덕성과 영성을 통해 여성들의 우월한 자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였다. 2세대 여성운동이 전통적인 가치들에 도전하는 운동들과 궤를 같이 하며 등장했고 다양성과 대안적 하위문화들에 대한 포용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종교 밖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1세대 여성운동은 종교라는 조건을 유일한 기반으로 했고 이것을 상실하면서 붕괴되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제공하는 공적 영역의 상실을 들 수 있다. 여성성과 가정성에 대한 승배는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1세대 여성운동가들에게는 어찌됐건 공적 영역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가정, 종교 영역, 여성 모임이라는 ‘교회 안’과 ‘분리된 영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이기는 했지만, 여성들의 조직화를 촉진시킨 원동력이었다. 가정성은 이 제한된 영역에서 여성들의 활동과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었다. 2세대 여성운동이 애초에 가정성 기반을 두지 않고 사회 제영역에서 조직화되어 교회와 결합하지 않고도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조직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1세대 여성운동은 1920년대 교회와 가정성이 보장해주고 있던 이 조직화된 여성모임들을 기반으로 했고 이것을 상실하면서 붕괴되었다.

세 번째로 성서 종교 이외의 종교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들 수 있겠다. 1세대 여성운동의 시기는 아직 다양한 세계종교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들을 종교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시기다. 1세대 여성운동

가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종교는 성서 종교뿐이었고, 가장 급진적인 종교 비판조차도 성서에서 근거를 찾았다. 2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스트 여성운동이나 세계 종교들을 선택함으로써 성서 종교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었던 반면, 1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 인식의 대상, 다시 말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교는 성서 종교뿐이었다. 그러나 1세대 여성운동가들에게 성서 종교는 적극적인 개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제도적 기반이었고, 성서 종교가 더 이상 여성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1세대 여성운동은 붕괴했다.

1세대 페미니즘 단절의 원인은 2세대 페미니즘 성공의 원인과 맞닿아 있다. 1세대 페미니즘의 단절을 가져왔던 도덕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긴장과 이에 대한 성서 종교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20세기에 이르러 타 문화에 대한 교차문화적 연구와 다양한 세계종교들의 유입으로 인해 완화되었다. 1세대 여성들이 서구 사회의 기독교적 모랄과 교회의 부흥 등 성서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종교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었던 반면, 2세대의 여성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2세대 페미니즘은 1세대 페미니즘처럼 역사적으로 일관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상실로부터도 좀 더 자유로웠다. 1세대 페미니즘에서와 같은 극적인 단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2세대 페미니즘이 제시했던 다양성과 차이의 정치는 1세대 여성운동에서 중간계급 주류 여성 중심의 기독교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단일 노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1세대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을 18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적 계몽과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 두고, 이를 토대로 미국 1세대 페미니즘의 단절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것들은 19세기에 들어서 자유주의 신조와 결합하며, 이로써 합리적 개인주의

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1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지적 정당성을 확보할 기반이 되었다. 자유주의 운동과 결합한 1세대 여성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도덕개혁이었다. 19세기 중반에 모순되는 가치들로 공존했던 빅토리안 성모랄의 도덕주의와 성적 자유주의는 가정성의 승리로 귀결되는 듯 했고, 이 가정성이라는 가치는 1세대 페미니즘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었다. 참 여성성의 종파로 대변되는 이 시기의 기독교적 가정성은 성서 종교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가정성에 기반 한 도덕주의 여성운동은 투표권 획득이라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1세대 여성운동의 주류를 이루었고, 가정성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친 성서 종교는 1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덕’이라는 전략은 성적 자유주의와의 긴장을 피할 수 없었다. 단절의 시기에 새롭게 형성되었던 가정성은 복잡한 것이었다. 단절기 초기인 1920년대 교육의 기회를 얻고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젊은 여성들에게 가정성이라는 가치는 공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시기 여성들은 가정성을 기반으로 했던 여성 문화, 여성 조직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다. 소위 성혁명이라 불리는 이 당시 여성들의 성적 자유에 대한 관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낭만적 사랑과 결혼이라는 신화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정성으로 변질되어갔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형성된 가정성은 더 이상 여성들이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얻어왔던 정치적 정당성을 담보해주지 못했으며, 1세대 여성운동에게 이데올로기적 기반과 여성조직의 상실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기의 조직화된 여성운동은 종교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과 여성모임의 조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대부분 주류 개신교회를 종교적 배경으로 하고 있던 1세대 여성운동가들에게 종교가 정치 영역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1세대 여성운동이 종교적 우월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던

도덕에 대한 강박은 필연적으로 자유주의와의 긴장을 안고 있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운동 단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논문은 여성운동의 오랜 단절기를 종교와의 관련 하에 서술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존의 정치사회적인 분석들이 간과해 온 이데올로기적 기반에 대한 고찰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1세대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종교와 여성 '운동'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는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종교학이 발견할 수 있는 여성들의 숨은 지성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여성사를 서술하는 데 발전적인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종교 전통 내에서 여성의 지위나 몇몇 여성들의 활동, 경전의 재해석 혹은 여성들의 새로운 종교운동, 여신숭배나 의례와 같은 몇몇 제한된 주제들만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페미니스트 종교학의 분야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 글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현대 여성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비록 명맥이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1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서구 사회에서 성서와 성서 종교의 변화 없이 여성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에서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 즉 현재 '종교와 여성' 분야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신격의 남성형 총칭에 대한 비판, 여신, 여신 의례, 여성 상징, 전례 용어, 여성 성직 임명, 여성 영성 등의 문제들은 그대로 여성운동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페미니스트들의 핵심적인 관심사 중 하나는 여성형 언어를 발견하는 것과 상징 영역에서 여성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자아의 발견과 내면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현재의 3세대 페미니즘에 이르면, 여성 영성과 여신, 여성 상징은 그 자체로 여성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종교가 현대 여성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는 것도 페미니스트 종교학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Discontinuous Period of American Women's Movement and Its Religious Background

Choe, Yeon-Jung

Religion has almost always been subject to criticism in the existing feminist studies. This dissertation is to illuminate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the women's movement through the explanation for discontinuous period (1920-1963) of American women's movement.

Above all things, 'True Womanhood' and 'Domesticity' was the important ideological bases of the 1st wave feminism. And the Protestantism that combined intellectual enlightenment and liberalism had influenced on the growth and the elevation of these values. Christian domesticity represented by the cult of the true womanhood guaranteed women activity area, and the 1st wave feminists developed women's movement focusing on the moral crusade within this Christian limit.

There was a social tension between morality and the issue of 'Sexual Liberty' arose in the same period. The concern to the issue of sexual liberty was maximized by the early 20th century, the closing period of the 1st wave feminism and was combined to the Victorian sexual morality through the Sexual Revolution in 1920's. For its combination with the sexuality, domesticity in 1920's has lost its moral and spiritual superiority, and couldn't play a role as the ideological base anymore. While domesticity in the mid-nineteenth which was combined to the cult of the womanhood was the motive power of the continuance of

the 1st wave feminism, domesticity in the early 20th which undergone the change was to be the reason of the discontinuance of the 1st wave women's movement.

Redefined in 1920's means the loss of the ideological base of women's movement.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suggest some religious conditions that causes the discontinuation of the 1st wave women's movement; 1) the dominant influence of moralism and Christian domesticity on women's movement in the 1st wave period, 2) the loss of the women's public sphere which was provided by the church, 3) the non-awareness of religions except biblical religions.

We can connect the factors in the discontinuance between the 1st wave feminism with the factors in the explosive rise of the 2d wave feminism. Because of the cross-cultural studies of the other areas and cultures and the influx of various world religions in the mid-twentieth, the dominant influence of the biblical religions on women's movement decreased. Women in 2nd wave period were able to choose or change their own religion. The politics of diversity and difference suggested by the 2nd wave feminism was pushing the limits of the 1st wave feminism's unitary line that had been based on biblical religions and its morality.